

## 다게스탄 공화국의 민족어 정책\*

성종환\*\*

### 국문요약

본 논문은 다게스탄 공화국의 민족어 정책을 다룬 것이다. 다게스탄 공화국은 러시아연방의 한 주체로서 러시아 연방헌법 및 러시아연방의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어를 지정할 수 있고, 공화국의 토착 민족어를 보존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게스탄 공화국 헌법은 “다게스탄 공화국 국어는 러시아어와 다게스탄 제 민족어이다. 다게스탄 공화국은 모든 민족에게 모국어의 보존과 모국어의 연구, 발전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게스탄 공화국에는 28개 민족어가 다게스탄 공화국의 국어로 채택될 수 있고, 마땅히 채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자를 가진 민족어를 비롯하여 러시아어, 체첸어, 아제르바이잔어 등 총 14개 언어를 국어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어느 공화국들과는 달리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이 채택되지 않아 제 민족어의 발전 및 보존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기울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제 민족어에 대한 교육 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민족어를 통한 교육은 물론이고 민족어로 학습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학교의 수나 학생 수가 러시아어에 비해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소수민족 언어의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제 민족어 대한 보존 및 발전, 나아가 이를 통한 민족

\* 이 논문은 2002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S2072)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여 헌법에 명시한 “모든 민족에게 모국어의 보존과 모국어의 연구, 발전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1. 서론 - 연구 목적

로마슈킨(В. В. Ромашкин, 1999)에 따르면, 언어는 모든 인류와 개인의 거울이자, 소수이든 다수이든 제 민족의 고귀한 자산이며, 한 개인의 일정 민족에 대한 소속 여부를 가능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이 언어는 수세기에 걸쳐 형성 완성되며, 당해민족의 오랜 경험 및 문화의 저장고이기도 하다. 언어의 보존 및 발전에 대한 노력은 당해민족의 의식수준을 결정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것이다.

이러한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 아니라, 특정 사용집단이 세계를 인식하는 체계이자 그들의 정신적인 성취를 담고 있으며, 이는 곧 그들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전 세계 수천종의 언어는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알래스카 페어뱅크 대학 마이클 클라우스 교수 등 언어학자들은 현재 지구상에 사용되고 있는 6500여종의 언어 가운데 2/3가 100년 안에 멸종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소수민족으로 분류되는 63개를 포함하여,<sup>1)</sup> 최소한 192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이다.<sup>2)</sup> 네론자크(Неронзак В. П., 2002)에 따르면, 이러한 소수민족의 언어들은 민족적인 재앙에 가까운 환경에 처해있으며, 이는 무엇보다 과거 ‘소비에트 민족’을 창설하고자 소수민족 동화정책을 펼친 결과 소수민족들의 독자

1) 러시아에서 법적으로 소수민족의 지위를 갖는 민족은 그 구성원의 수가 5만명 이하인 경우로 아바자어, 아굴어, 알레우트어, 알류토르어, 안디어, 아르친어, .... 돌간어, 케트어, 만시어, 우데게어, 에벤키어, 에벤어, 유기어, 유카기리아 등 63개 언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민족’이라는 용어를 법적 기준에 의한 개념이 아니라 러시아 민족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며,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민족어 또한 각 공화국의 국어(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язык)로 채택되었거나 기타 상대적 의미의 소수민족 언어임을 미리 밝혀둔다. См. Неронзак В. П., 2002: 5

2) 2002년 실시된 러시아연방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등록된 민족의 수는 192개이며, 그 외에 소속 민족이 결정되지 않은 주민 수가 43,000명,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민의 수는 1백 48만 여 명에 달한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등록된 민족 192개 중 인구 100만명을 상회하는 민족은 러시아인, 타타르인, 우크라이나인, 바슈키르인, 추바슈인, 체첸인, 아르메니아인 등이며, 이들의 총 수는 러시아 국민 전체의 80% 정도인 1억 1천 6백만 명에 이른다. (“Основные итог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2002г.”).

적인 발전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데서 기인한다.

실제로 로마슈킨(В.В. Ромашкин, 1999)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자신의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인정하는 비러시아계 민족의 수는 점차 늘고 있다. 예를 들면, 1/2 정도의 카렐인, 1/3 이상의 바슈키르인, 코미인, 모르드바인, 우드무르트인, 그리고 20-25% 정도의 마리인과 추바슈인 등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 동안만 해도 부랴트인, 코미인, 마리인, 우드무르트인, 추바슈인, 야쿠트인들 중 자신의 모국어 구사능력을 상실한 수는 2배나 증가했다(В.В. Ромашкин, 1994).

아울러 각 민족학교에서의 해당 민족어 교육열 또한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카르니셰프(А. Д. Карнышев, 1997)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러시아연방내 비러시아계 민족의 자녀들 중 9%만이 민족학교에서 수학했으며, 사실상 바슈키르인, 타타르인, 야쿠트인, 투바인들만이 모국어로 교육하는 민족학교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다게스탄의 경우 헌법 제 10조에서, “다게스탄 공화국 국어는 러시아어와 공화국 제 민족어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착어 중에서는 비록 문자를 가진 11개 언어만이 국어로 채택되었을 뿐 나머지는 국어로 채택되지 않았지만,<sup>3)</sup> 28개 민족어가 모두 국어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다게스탄 공화국이 공화국 제 민족어를 모두 국어로 규정함으로써 토착어 부흥을 위해 다른 공화국들에 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공화국들이 헌법 뿐 아니라 “공화국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여 민족어의 보존 및 발전을 꾀하고 있는 반면,<sup>4)</sup> 다게스탄 공화국에서는 아직까지 동 법률이 채택되지 못한 채 논의 중에 있으며, 국어로 채택된 토착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족어 대한 교육현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본고의 목적은 민족어 회복은 정체성 회복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전제하에,<sup>5)</sup>

3) 11개 토착어 외에 러시아어, 체첸어, 아제르바이잔어 등 모두 14개 민족어가 국어로 채택되었다. 본고 4.2 참조.

4)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을 채택한 공화국은 21개 공화국 중 16개이다. 본고 4.2 참조.

5) 사회 구성체로서의 개인의 정체성은 상황적 민족성과 같은 개념으로 특정한 사회적 맥락과 구조 속에서 야기되고 표현된다. 따라서 정체성을 연구할 경우 그에 영향을 주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정체성이 어떠한 형태와 내용으로 각 개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유의 민족문화와 전통의 유지, 발전을 통한 민족 정체성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는 민족 고유의 언어라고 본다. 언어는 민족성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한 민족의 집단적인 언어동화는 그 집단의 사회문화적 동화의 가장 신뢰할만한 지표로 여겨져 왔다. 즉 민족어를 통해서 한 민족집단의 문화적 가치와 민족 주체성이 세대에 걸쳐 전승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민족어를 어느 정도 잘 어느나 하는 것은 민족 문화와 정체성이 세대간에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윤인진, 1998, 성종환, 2003).

다게스탄 공화국의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90년대 이전까지 공식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던 토착민족어 부흥을 위해서 러시아연방 정부 및 다게스탄 공화국 정부차원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입안,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수민족 언어 교육 현황은 어떤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다게스탄 공화국의 제 민족어가 처한 현실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러시아연방 중앙정부 차원의 소수민족 언어정책을 살펴보고, 나아가 다게스탄 정부의 헌법 및 언어관련 법률상에 나타난 언어정책과 공화국 국어로 지정된 제 민족어의 교육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 II. 다게스탄 공화국 개괄

### 1. 연원

1921년 1월 20일 다게스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소련에 편입된 이래 소련 패망 후 1991년 5월 러시아연방 소속 자치공화국으로 거듭난 다게스탄 공화국은 아디게야 공화국, 인구셰티야 공화국, 카바르드-발카리아 공화국, 칼미키야 공화국, 카라차이-체르케시야 공화국, 북오세티야-알라니아 공화국, 체첸 공화국, 그리고 크라스노다르 변경주, 스타브로폴 변경주, 아스트라한주, 볼고그라드주, 로스토프주 등 총 13개의 북카프카스 지역의 연방주체와 함께 남부연방지구에 편성되어 있다.<sup>6)</sup>

카프카즈 동부지역에 위치한 다게스탄 공화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이며, 러시아연방의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다게스탄 공화국은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이란과 육지와 카스피해를 통해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연방 내에서는 스타브로폴 변경주, 칼미키야 공화국 및 체첸 공화국과 인접해 있다. 공화국의 남북간 총 연장은 약 400 킬로미터이며, 면적은 503만 평방킬로미터로 러시아연방 전체의 0.29%, 89개 연방 주체 중 55위를 기록하고 있다.

6) 2000년 5월 13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제 849호 “러시아연방 대통령 전권대표”에 관한 포고령을 발표하여,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변경주, 주, 민족자치구 등 89개 주체를 중앙연방지구, 북서연방지구, 남부연방지구, 볼가연방지구, 우랄연방지구, 시베리아연방지구, 극동연방지구 등 7개 연방지구로 분리, 각 지구에 전권대표를 파견, 관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치를 꾀하고 있다.

## 2. 인구

2002년 인구센서스 결과 나타난 다게스탄 공화국의 총인구는 2,576,531명으로 러시아 연방 전체의 1.77%, 89개 연방 주체 중 20위를 기록하며, 인구밀도는 1평방킬로미터에 51.2명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02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대부분의 주체가 심각한 인구 감소현상을 겪고 있는데 반해, 다게스탄 공화국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인구수는 1990년 대비 41.0% (755,000명)나 증가했다. 이는 1990년 이래 자연 증가수보다 많은 수치로, 적지 않은 인구가 타 지역으로부터 다게스탄 공화국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다게스탄 공화국의 인구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up>7)</sup>

## 3. 민족, 언어 및 종교

어족 및 종족 구성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태를 보이는 다게스탄 공화국 인구는 9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3개 어족으로 구분된다.

첫째, 이베리아-카프카즈어의 다게스탄-나흐 어족으로, 여기에는 아바르족, 다르긴족, 레즈기족, 라크족, 타바사란족, 루틀족, 아굴족, 짜후르족 및 체첸족이 속한다.

둘째, 알타이어족의 터키어그룹으로 쿠미크족, 아제르바이잔족, 노가이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인도-유럽어족으로 러시아인, 타트족이 있다.

이들 중 다게스탄 공화국에 주로 거주하는 토착어족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바르족(Аварцы)

다게스탄 공화국의 토착민족으로 제 민족 중 가장 많은 개체수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 현재 러시아연방 전역에 81만 4천여 명이 산재되어 있으며, 그 중 75만 8천여 명이 다게스탄 공화국에 밀집되어 있다. 다게스탄 전체 인구 중 29.44%이다. 아바르어를 구사하며, 문

7) 다게스탄 共和國 인구변동 추이 - 단위(1,000명)

연도	1989	199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인구수	1,802	1,822	1,890	1,925	1,953	1,997	2,041	2,073	2,094	2,120	2,142	2,160	2,577

러시아통계연감(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1. p.83.

자는 러시아어 문자를 사용한다. 수니파 회교도가 대부분이다.

#### 다르긴족(Даргинцы)

다게스탄 공화국의 토착민족으로 공화국 제 민족 중 두 번째 개체수를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 전역에는 약 5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게스탄 공화국에는 42만 5천여 명이 밀집되어 있다. 다게스탄 공화국 전체 인구의 16.52%이다.

다양한 방언이 있는 다르긴어를 사용하며, 문자는 러시아어 알파벳을 사용한다. 수니파 회교도가 대부분이다.

#### 쿠미크족(Кумыки)

다게스탄 공화국의 토착민족으로 현재 36만 5천여 명이 다게스탄 공화국에 밀집해 있으며, 전체 인구 중 14.20%를 차지한다. 쿠미크어를 사용하며 문자는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수니파 회교도가 대부분이다.

#### 레즈기족(Лезгин)

역시 다게스탄 공화국의 토착민족으로 현재 공화국내에 33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로 다게스탄 공화국 동남부에 거주하며 큐린, 사무르, 켈헨 등 방언으로 구분되는 레즈기어를 사용한다. 초기에 아랍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자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1928년 라틴어로 문자를 만들었으나, 1938년 다시 러시아어 알파벳을 사용하게 되었다. 수니파 회교도가 대부분이다.

#### 라크족(Лакцы)

다게스탄 공화국의 토착민족으로 현재 공화국내에 1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42% 정도이다. 라크어를 사용하며, 매우 다양한 방언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어 알파벳을 사용한다. 수니파 회교도가 대부분이다.

#### 타바사란족(Табасараны)

다게스탄 공화국의 토착민족으로 2002년 현재 공화국내에 1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인구 중 4.28%를 차지한다. 주로 다게스탄의 동남부에 거주하며 남부 및 북부 방언으로

구분되는 타바사란어를 사용한다. 문자는 러시아어 알파벳을 사용한다. 수니파 회교도가 대부분이다.

#### 노가이족(Ногайцы)

러시아연방의 한 소수민족으로 러시아연방 전역에 거주하는 약 9만여 명 중 주로 다게스탄에 3만 8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화국 전체 인구중 1.48%이다. 카라노가이와 쿠바 등 두 가지 방언으로 구분되는 노가이어를 사용하며, 문자는 18세기부터 1928년까지는 아랍어를 사용했으며, 그후 1928년에는 라틴어를, 다시 1938년부터 러시아어 알파벳을 사용한다. 수니파 회교도가 대부분이다.

#### 루툴족(Рутульцы)

다게스탄 공화국의 토착민족이다. 러시아 전역에 거주하는 2만 9천여 명 중 다게스탄 공화국에 2만 4천여 명이 밀집 거주한다. 공화국 전체 인구 중 0.94%에 해당한다. 루툴족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루툴족의 공용어는 1952년까지 레즈기어였으며, 1952년부터는 러시아어였다. 1990년부터 러시아어 알파벳을 바탕으로 한 문자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수니파 회교도가 대부분이다.

#### 아굴족(Агулы)

다게스탄 공화국의 토착민족이다. 러시아 전역에 2만 8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다게스탄에 약 23,300명이 밀집되어 있다. 공화국 인구 중 약 0.9%이다. 아굴어를 사용하며 러시아어 알파벳을 문자로 한다. 수니파 회교도가 대부분이다.

#### 짜후르족(Цахуры)

러시아연방의 한 소수민족으로 대부분 아제르바이잔과 다게스탄 공화국에 집중되어 있다. 2002년 현재 다게스탄 공화국에 거주하는 짜후르족의 수는 6500여 명이며, 전체 인구 중 0.32%이다. 짜후르족의 언어는 짜후르어이며, 수니파 회교도가 대부분이다.

#### 타트족(Таты)

다게스탄 공화국의 토착민족으로 타트어를 사용한다. 2002년 현재 다게스탄에 거주하는

타트족은 825명, 전체인구의 0.03%에 불과하다. 1989년 인구조사 당시 12,939명, 0.7%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타트족 중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신봉하고 유대인으로 등록하기 때문이며, 특히 최근들어 많은 타트족이 이스라엘로 떠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다게스탄 공화국에 거주하는 주요 민족 중에는 러시아인, 아제르바이잔 인과 체첸인이 있으며, 이들의 수는 각각 러시아인 120,875(4.69%)명, 아제르바이잔 인 111,656(4.33%)명, 그리고 체첸인 87,867(3.41%)명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02년 현재 다게스탄 공화국 주요 민족 인구 구성비('89년 대비)<sup>8)</sup>

민족명	2002년 개체수 및 구성비(%)	1989년 개체수 및 구성비(%)
	총 인구 2,576,531	총 인구 1,802,188
아바르	758,438(29.44)	496,077(27.50)
다르긴	425,526(16.52)	280,431(15.60)
쿠미크	365,804(14.20)	231,805(12.90)
레즈기	336,698(13.07)	204,370(11.30)
라크	139,732(5.42)	91,682(5.10)
러시아	120,875(4.69)	165,940(9.20)
아제르바이잔	111,656(4.33)	75,463(4.18)
타바사란	110,152(4.28)	78,196(4.30)
체첸	87,867(3.41)	57,877(3.21)
노가이	38,168(1.48)	28,294(1.60)
루틀	24,298(0.94)	14,955(0.80)
아굴	23,314(0.90)	13,791(0.80)
짜후르	8,168(0.32)	5,194(0.30)
타트	825(0.03)	12,939(0.70)

다게스탄 공화국은 다른 러시아연방 소속 공화국이나 민족자치 단체와는 달리 명목민족(Титульная национальность)이 없다.<sup>9)</sup> 하지만 위에 열거한 어족은 공화국 헌법 및 미채택

- 8) 출처: 2002년 인구센서스. 표에 수록된 민족은 해당 민족어가 다게스탄 공화국 국어로 제정된 경우이며, 타트족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의 수는 다게스탄 인구 구성비의 순위와 동일하다. 1989년 대비 2002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위의 표에 따르면 러시아인, 타트족, 노가이족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민족의 수는 대부분 상당 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9) 러시아연방 각 공화국에서는 대부분 명목민족(Титульная нация)의 언어가 국어의 지위를 획득한다. 예를 들면, 체첸 공화국에서는 체첸민족의 언어, 즉 체첸어, 사하(야쿠티야) 공화국에서는 야쿠트어가 국어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하는 다게스탄 공화국에는 명목민족은 없으나, 집단 거주 토착민족의 수가 28개에 이르러, 일부 학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다게스탄의 국어는 28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케스탄 공화국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국어로 제정되어 있다.

### III. 러시아연방 정부의 민족어 정책<sup>10)</sup>

#### 1. 헌법상의 언어정책

1985년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소비에트시대, 특히 스탈린 이후 취해졌던 소수민족 언어의 말살정책은 전면 폐지되고,<sup>11)</sup> 소수민족들의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정책성 회복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sup>12)</sup>

- 
- 10) 본 논문의 ‘러시아연방 중앙정부의 민족어정책’은 논문의 성격 상 대부분 성종환(2003)에서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 11) 스탈린은 러시아인 우월주의를 신봉, 레닌에 비해 더욱 강압적이고 급진적으로 대 소수민족 러시아동화정책을 펼쳐나갔다. 언어정책에 있어서 스탈린은 레닌이 표방한 “민족의 형식은 유지하되 내용은 사회주의적으로 동질화하자”는 진보주의적 정책을 뒤집고, 제 민족의 문화는 단일 언어권의 단일문화로 융화(fusion)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1938년 3월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어는 모든 비 러시아 학교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되고, 레닌이 주창한 모든 언어에 대한 평등이념은 공식적으로 폐기되고, 나아가 러시아어는 고등문화의 언어로서 다른 소수민족어들의 보고이며 사회주의의 언어로 찬양되었다. 후르시초프와 브레즈네프 통치시기에 소련정부는 소수민족들의 러시아 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브레즈네프는 모든 민족을 ‘소비에트인(Советский народ)’이라는 개념으로 융합, 단일민족화 시도를 통해서 소수민족들의 언어동화를 가속화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어는 ‘소비에트인’의 언어로 찬양되고, 연방 각 공화국에서 러시아어 교육을 한층 강화시켰다. 브레즈네프의 뒤를 이은 안드로포프는 소련공산당의 민족 및 언어정책을 그대로 답습, “소련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족들의 단순 결합이 아닌 융합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민족들의 후세대에 대한 민족어 교육은 난관에 봉착했으며, 젊은 세대는 그들 나름대로 민족어보다는 사회, 경제적 신분상승에 도움이 되는 러시아어 학습에 더 많은 열의를 보였다.(성종환, 2003)
  - 12) 1989년 11월 14일자 성명에서 스탈린 시대의 소수민족 강제이주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희생자들의 명예와 권리는 법에 의해 회복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1991년에는 압박 받았던 소수민족들이 정치적 독립과 사회·문화적 자치권을 회복하게 되어(윤인진 1998), 민족어에 대한 관심 또한 자연스럽게 고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 3월 인민대표회의에서 초대 소련 대통령으로 추대된 고르바초프는 1990년 4월 24일 “소련방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에 서명하여, 민족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러시아어를 공용어(Официальный язык)로 지정하여(제4조), 모든 국가기관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제14조), “국가는 소련의 제 민족에게 국가 및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족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족어의 부흥, 보존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본 법률은 소련 언어정책의 제반 원칙을 규정하며, ..... 제 민족어의 자유로운 발전과 사용을 보장하고, 제 민족의 비공식적인 개인간의 관계에서 민족어의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다”(전문)고 선언함으로써, 소련방 구성 공화국 및 자치공화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민족어 사용을 허용했으며, “양육과 교육 언어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며”(6조), “모국어 및 소련방 타 민족어에 대한 연구여건을 조성”(7조)하고, “연방 공화국 및 자치공화국의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에 사용되는 언어는 현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23조)고 규정했

그 후, 1993년 12월 12일 옐친 대통령이 서명한 러시아 연방헌법은 과거 소련 헌법과는 달리,<sup>13)</sup> “러시아연방의 국어는 러시아어이며, 이는 러시아연방 전역에 적용된다”(제68조 1항)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울러서 “각 공화국은 고유의 국어를 제정할 권리를 가지며, 각 공화국 국어는 연방 및 공화국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러시아연방 국어와 함께 사용된다”(제68조 2항)고 규정하고, 제68조 3항은 “러시아연방은 모든 국민에게 모국어 보존 및 연구 발전에 필요한 여건조성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동 헌법은 또한 제26조 2항에서 “모든 국민은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의사소통 언어 및 양육언어, 교육 및 창조 활동에 필요한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각 공화국의 국어 채택 및 제반 분야에서의 언어 선택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 2. 러시아연방의 민족어 정책

이와 같이 헌법상에 보장된 러시아연방의 언어정책은 1998년 7월 24일 옐친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러시아연방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sup>14)</sup> 동 법령 전문은 “러시아연방 내에 거주하는 제 민족의 언어는 러시아연방의 국가자산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국가는 민족어와 이중언어 및 다중언어의 발전을 촉진한다. .... 본 법령은 러시아연방 제 민족어의 보존과 균등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천명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또한 제 민족어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러시아어를 러시아연방 국어로 지정하고, “연방 각 공화국은 러시아 연방헌법에 따라 독자적인 국어를 지정할 수 있으며”(제3조 2항), “러시아연방 각 주체는 본 법령에 따라 국민들의 의사소통, 양

다.(성종환, 2003)

- 13) 1918년 7월 헌법에는 언어와 관련된 조항은 전혀 언급이 없으며, 1924년 1월 헌법에서는 제34조에서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의 인민위원회, 총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사항을 6개 공용어(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시어, 그루지아어, 아르메니아어, 투르크-타타르어)로 발간된다”고 규정하고, 1936년 12월의 소위 “스탈린 헌법”은 제40조에서 “소연방 최고회의가 채택한 법령은 연방공화국 언어로 공포된다.....”고 규정하고, “법원의 송사는 연방언어 및 자치공화국, 자치주의 언어로 진행되며, 해당 언어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통역을 통해서 자료를 접할 수 있고, 또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소련 국민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제121조에서 “.....중등학교에서의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소비에트 헌법이라 할 수 있는 1977년 10월 헌법에서도 “소련국민은 중등학교에서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제45조)고 규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민족어 사용 및 교육에 대해 배려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성종환, 2003).
- 14) 본 법령은 1991년 10월 25일 채택된 “러시아 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공화국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Закон “О языках народов РСФСР”)을 개정한 것으로, 이는 다시 2002년 11월 15일 푸틴 대통령에 의해 동법 제3조에 6항 등을 보충함으로써 재개정되었다.

육, 교육 및 창작활동에 필요한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규범을 채택할 수 있다”(제3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령은 또한 국가는 “러시아연방의 국어인 러시아어의 기능을 보장하고, 민족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제6조)하며, “민족 구성원의 수에 관계없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 모국어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양육 및 교육에 협력”(제9조 5항)하고, “문자가 없는 민족은 모국어 문자를 만들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마련한다”(제10조 4항)고 규정하여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연방차원의 지원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민족어의 보존 및 발전을 통한 소수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보겠다.

뿐만 아니라 본 법령은 러시아연방 정부에 제 민족의 모국어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설립 등을 통해서 제 민족이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에서는 본 법령 외에 소수민족의 언어 및 일상문화 보존에 따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족-문화 자치구에 관한 법률”, “소수민족 보호에 관한 기본 개념”, “러시아연방 북부지역 및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토착 소수민족 공동체 조직을 위한 기본원칙” 등 다양한 법령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러시아연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 및 언어정책 요소는 러시아연방 제 민족어의 언어학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Ю. Н. Караулов, 2002), 이는 연방정부가 소수민족 언어의 보존 및 발전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렐리아 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러시아연방 공화국에서 연방 국어인 러시아어 외에 1개 이상의 토착민족어를 국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부분의 공화국에서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을 채택함으로써 토착민족어의 부흥, 발전, 보존을 통한 민족정체성 확립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러시아 연방헌법 및 “러시아연방의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다게스탄 공화국의 헌법과 “다게스탄 공화국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안”에 나타난 공화국의 언어정책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 IV. 다게스탄 공화국의 민족어 정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 연방정부는 연방헌법(1993년) 및 “러시아연방 제 민족어

에 관한 법률”(1998년)에서 러시아연방의 국어를 러시아어로 제정하고, 모든 국민은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와 의사소통과 양육·교육·창조활동에 필요한 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며, 연방 소속 각 공화국은 고유의 국어를 제정할 수 있고, 각 공화국 국어가 연방 및 각 공화국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에서 연방 국어인 러시아어와 함께 광범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러시아연방은 모든 국민에게 모국어를 보존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연구 및 발전에 따른 여건조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공화국들 또한 과거 소비에트 시절과는 달리 소수민족 언어의 부흥 및 보존, 발전에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여건이 보장되어 있다.<sup>15)</sup>

### 1. 헌법상의 민족어 정책

1994년 채택된 다게스탄 공화국 헌법은 10, 19, 31, 80, 119조에서 민족어 정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화국 헌법 제 10조는, “다게스탄 공화국 국어는 러시아어와 다게스탄 제 민족어이다. 다게스탄 공화국은 모든 민족에게 모국어의 보존과 모국어의 연구, 발전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헌법 조항에 따르면 다게스탄 공화국은 28개 민족어가 국어로 채택될 수 있고, 마땅히 채택되어야 한다.<sup>16)</sup>

공화국 헌법 19조는 공화국 국민 모두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는 민족과 인종, 성별, 언어, 출신,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상태, 직위나 직종...등과 관계없이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역시 과거 소비에트 시대와는 다른 언어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 31조는 모국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민족적 연원을 결정하고 표명할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민족적 연원을 결정하고 표명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모국어 사용권 및 교제·양육·교육·창조활동에 필요한 언어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민족어의 사용은 물론 사용 언어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15) 카렐리아 공화국은 실제로 러시아어만을 국어로 제정했을 뿐 명목민족어인 카렐어를 국어로 제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명목민족이 없는 다게스탄 공화국을 비롯한 모든 공화국은 러시아연방의 국어인 러시아어를 포함, 1개 이상의 토착민족어를 국어로 채택하고 있다.

16) 1953년 유네스코가 정의한 국어(National Language)의 일반적인 정의는 ‘해당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부문의 통합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상징 역할을 수행하는 언어’이며, 이와 유사한 공용어(Official Language)는 국가 통치, 입법, 사법행위에 사용되는 언어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다분히 유동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상호 혼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헌법 80조 22항은 "...일정 지역의 언어 환경 변경문제 심의시, 해당 지역 의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게스탄 의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 과정을 거쳐 동의안을 가결한다"고 규정하여 언어문제를 행정구역, 인구, 경제·사회 및 문화 환경 등 다게스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안건 처리과정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화국에서 행해지는 재판과 관련하여, 다게스탄 헌법 119조는, "재판은 러시아어, 혹은 현지 주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진행된다. 소송당사자가 소송 진행 언어를 모를 경우, 통역사를 통해서 소송에 참여하거나 모국어로 법정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모국어의 사용 및 발전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다게스탄 공화국도 다른 여타 공화국들과 마찬가지로 제 민족어의 국어 제정을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부흥 및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안"상의 민족어 정책

대부분의 공화국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여, 러시아연방 헌법 및 각 해당 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국어 제정권을 실행하고제 민족어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17)</sup> 하지만 다게스탄 공화국은 구체적으로 민족어를 명시하지 않은 채 모든 민족어를 국어로 제정하고, 제 민족어의 발전 및 보존을 위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게스탄 공화국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은 아직 채택되지 않은 채 "법률안"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sup>18)</sup>

어쨌든 1993년 입안된 "다게스탄 공화국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수많은 민족어 중 문자를 가진 언어(письменные языки), 즉 아바르어(аварский язык), 아굴어(агульский язык), 다르긴어(даргинский язык), 쿠미크어(кумыкский язык), 라크어(лакский язык), 레즈기어(лезгинский

17)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을 채택한 공화국은 21개 공화국 중 16개(카라차이-체르케시아:1996, 아디게야:1994, 알타이: 1993, 바슈코르토스탄: 1999, 부랴티야: 1992, 칼미키야: 1999, 카바르드-발카리아: 1995, 코미: 1992, 마리 엘:1995, 모르도비아: 1998, 타타르스탄: 1992, 티바: 1990, 우드무르티야: 2001, 하카시아: 1992, 추바시야: 1990, 사하:1992)이며, 이들 공화국은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에서 1) 토착 민족어의 지위, 2) 국민의 언어 선택권 보장, 3) 국가기관, 단체, 조직, 기업 등의 사용언어, 4) 교육, 학술 및 문화활동에 사용되는 언어, 5) 대중매체의 언어, 6) 명칭과 광고언어, 6) 역외거주 토착민족과의 관계, 7) 외교언어, 8) 언어의 보호 대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공화국 주민들의 토착 민족어 보존, 발전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18) 아직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지 않은 공화국은 다게스탄 공화국 외에, 인구세티야 공화국, 카렐리아 공화국, 북 오세티야-알라니아, 체첸 공화국 등이다.

язык), 노가이어(ногайский язык), 루툴어(рутульский язык), 타바사란어(табасаранский язык), 타트어(татский язык), 짜후르어(цахурский язык) 등 토착민족어 11개와 아제르바이잔어, 체첸어, 러시아어 등 총 14개 언어를 국어로 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게스탄 의회에서는 2004년 5월 1일 본 법안에 대한 1차 심의를 한 바 있으며, 여기서 본 법률안이 다게스탄 제 민족의 요구에 부응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는 현재 다게스탄 공화국 제 민족어가 겪고 있는 퇴보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다게스탄 공화국에서는 2003년까지만 해도 민족학교 교과서, 사전 등의 편찬을 위한 예산이 거의 배정되지 않았으며, 다게스탄 제 민족의 고전이나 민속 관련 작품 등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출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9)</sup>

### 3. 민족어 교육현황

그렇다면 다게스탄 공화국 초·중등학교의 민족어 교육현황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자. 아래 표는 다게스탄 공화국 헌법과 현재 논의 중인 미체택 “다게스탄 공화국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안”에서 국어로 제정하고 있는 14개 민족어(11개 문자가 있는 민족어와 러시아어, 아제르바이잔어, 체첸어) 중 러시아어를 제외한 13개 민족어에 대한 2001년 현재 초·중등학교의 교육현황을 나타낸 것이다.<sup>20)</sup>

다게스탄 공화국 13개 민족어(국어) 교육현황(2001년)

		교육언어					선택과목				
		학교수	1-4 학년	5-9 학년	10-11 학년	계	학교수	1-4 학년	5-9 학년	10-11 학년	계
도/농	민족어	교육언어					선택과목				
도	아바르					0	91	8673	9645	1252	19570
농	아바르	497	30774			30774	422	6478	44134	9547	60159
도	다르긴					0	68	4255	4050	513	8818
농	다르긴	186	18224			18224	150	2878	23370	5395	31643

19) <http://www.ru/db/news/msg.html?mid=456017>, 2003.

20) 본 자료는 러시아의 과학아카데미 산하 민족문화 연구소(Институт этнологии и антропологии РАН)의 발레리 스테파노프(Валерий Степанов) 교수가 직접 현지 실사를 통해 파악한 것으로 2002년 여름 본 연구소에 연수 중이던 필자에게 제공한 것임을 밝혀둔다. 러시아어의 경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실질적인 국어 및 공용어로서 전국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의 전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도	쿠미크					0	74	4669	6392	948	12009
농	쿠미크	75	13811			13811	107	3195	20869	5337	29401
도	레즈기	3	529			529	79	5361	6572	1311	12344
농	레즈기	146	13839			13839	136	971	19306	6261	26538
도	라크					0	50	1933	1956	273	4162
농	라크	75	2635			2635	57	379	3636	1068	5083
도	아제르바이잔					0	31	2923	3235	525	6683
농	아제르바이잔	6	545			545	41	4043	5738	1625	11406
도	타바사란					0	35	1921	2280	402	4603
농	타바사란	70	4327			4327	83	1416	7094	2638	11148
도	체첸어	21	2503			2503	36	943	4752	980	6675
농	체첸어					0	5	743	754	166	1663
도	노가이					0	1	17	5		22
농	노가이					0	32	1897	2727	586	5210
도	루틀					0	2	19			19
농	루틀					0	18	492			492
도	아굴	3	91	80	30	201					
농	아굴					0	22	980	957	346	2283
도	타트					0	2	59	53		112
농	짜후르					0	14	240	161	53	454

\* 표에서 교육언어란 학교에서 모든 교과과정에 대한 교육이 해당 민족어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선택과목이란 모든 교과과정은 러시아어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해당 민족어는 연구언어로 선택 학습하는 경우이다.

위의 표를 보면 초중등학교에서 민족어를 교육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소위 민족학교의 수와 학생 수는 극히 소수임을 알 수 있다. 인구 75만 명이 넘는 아바르족의 민족어인 아바르어조차도 교육언어로 채택한 민족학교 학생들은 약 3만여 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초등학교 학생인 1-4학년에 불과하며, 도시지역에는 전무한 형편이다. 특히 도시지역에 민족학교가 개설되어 민족어를 1학년에서 11학년까지 전 학년의 교육언어로 채택한 토착민족은 아굴족이 유일하나 학생 수는 겨우 203명으로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노가이어, 루틀어, 타트어, 짜후르어 등을 교육언어로 채택한 학교는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전무한 실정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민족어 또한 일부 1-4학년 과정에서만 교육언어로 채택했을 뿐이다.

민족어를 선택과목으로 연구하는 경우 또한 각 민족의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며, 특히 도시 지역 학교에서는 농촌 지역에 비해 민족어를 선택한 학생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명목민족이 없고, 어느 특정 민족어만을 국어로 채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

자를 가진 모든 민족어가 국어로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상응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당 민족어가 민족들 사이에 확산되어 심분 활용되기 어렵고, 따라서 민족어 자체의 발전 및 민족어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문화 창달을 통한 민족 정체성 확립에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V. 결론

오늘날 러시아연방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민족의 언어들 중 타타르어, 오세트어, 칼미크어, 카라차이어, 체르케스어, 발카르어, 인구슈어, 우드무르트어, 야쿠트어, 티바어, 모르드바어, 아바르어 및 일부 토착어가 해당 자치공화국의 국어로 채택되기는 했으나 그 외의 소수민족 언어는 전반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Бражнегоков Б. X.: Шогенов А. А. 2003).

이러한 위기의 징후는 소비에트시대 이래 모국어의 위상과 모국어 구사능력의 저하, 모국어 사용자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해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많은 소수민족들이 사고하고 말하고 읽고 쓰기에 더 이상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한 우려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다수의 소수민족 언어는 개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변방으로 밀려나 더 이상 언어 고유의 창조적 사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언어체계 내부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어휘나 표현, 문법구조 등을 더 이상 확대 재생산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언어 발전상의 정체나 지체상태를 맞게 되었다.

소수민족 언어의 운명과 관련하여 키브리크(Кибрик А. Е. 1992)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언어를 '건강한' 언어와 '소멸'어의 중간에 두고, '소멸'어에 가까울수록 사라질 확률이 높은 '병든' 언어로 규정한다.

네론자크(Неронзак В. П. 2002)는 러시아연방에 존재하는 소수민족 언어의 반 정도가 이와 같은 '병든' 언어에 속한다면, 이들 언어를 치유, 회생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더 많은 소수민족 언어가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족어 교육 및 사용 회피현상을 '언어적 니힐리즘'(языковой нигилизм)으로 정의한 미할첸코는 그 원인을 첫째, 토착민족들이 모국어에 비해 러시아어를 선호하고, 둘째, 사회 구성원들과의 교체에서 러시아어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 러시아어의 오랜 문화적 전통, 러시아어

를 통한 고등교육의 수혜기회 획득 및 러시아연방 타 지역에서의 생활 가능 등의 객관적 사실에서 찾고 있는 바, 다게스탄의 제 민족어 또한 시급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병든 언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참고문헌

- 러시아 연방헌법 1993(1996, 2001)  
소련헌법 1918, 1924, 1936, 1977.  
다게스탄공화국 헌법  
다게스탄 공화국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안”  
러시아연방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  
각 공화국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  
『경향신문』, 2002년 2월 21일  
박영순. 『이중/다중언어 교육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7.  
백태현. “고려인’ 중앙아시아 이주의 역사적 배경.” 미발간 학술회의 발표문. 『중앙아시아 고려인 역사, 문화, 언어』. 국제학술회의, 카자흐스탄, 알마타, 1997.  
성종환. “러시아 지역정체성 연구방법.” 『슬라브 研究』. 제19권 1호. 서울: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연구소, 2003.  
윤인진. “중앙아시아 한인의 언어와 민족정체성.” 『재외한인연구』 7호. 서울: 재외한인학회, 1998.  
Shibutani, Tamotsu, and Kian Kwan. *Ethnic Stratification: A Comparative Approach*.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6.  
Uba, Laura. *Asian Americans: Personality Patterns, Identity, and Mental Health*. New York: Guilford Press, 1994.  
Бакланова Г.Б. “РАЗВИТИЕ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ОБУЧЕНИЯ РОДНОМУ ЯЗЫКУ КАК СПОСОБ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ВОЗРОЖДЕНИЯ КАЛМЫЦКОГО ЯЗЫКА,” <http://www.belti.msk.ru/unesco/d1.htm>. 2003.  
Бгажногоков Б.Х., Шогенов А. А. “КРИЗИС ЯЗЫКА И ПРОБЛЕМЫ ЭТН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http://www.belti.msk.ru/unesco/d2.ht>. 2003.  
Беликов В.И. “Самосознание, identity и этнические конфликты,” *Этническое и языковое самосознание*, М.: 1995.  
Белуосов В.В. “О состоянии и перспективах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м общении,” *Языковые пробл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законы о языках*, М.: 1994.  
Березуцкий И.В. “Новое в языковом облике Советского района Красноярска,” *Молодежь и*

- наука - третье тысячелетие: Сб. тез. 4-го межвуз. фестиваля, Красноярск: 1997.
- Гарипов Я.З. "ЯЗЫКОВОЕ САМОСОЗНАНИЕ КАК ФАКТОР ЭТНИЧЕСКОЙ СОЦИАЛИЗАЦИИ ЛИЧНОСТИ," <http://www.belti.msk.ru/unesco/d4.htm>, 2003.
- Дешериев Ю.Д. "Языковая политика,"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М.: 1990.
- Караулов Ю.Н. "Этнокультурная и языковая ситуация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и культурный плюрализм," [http://www.gramota.ru/mag\\_new](http://www.gramota.ru/mag_new), 2003.
- Кибрик А.Е. *Очерки по общим и прикладным вопросам языкознания*, М., 1992.
- Корнусова Б.Э. "РАЗВИТИЕ МОТИВАЦИОННЫХ К ИЗУЧЕНИЮ РОДНОГО ЯЗЫКА ЧЕРЕЗ СОЗДАНИЕ ПОЛИЛИНГВИС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ОБУЧЕНИЯ," <http://www.belti.msk.ru/unesco/d11.htm>, 2003.
- Костромаров В.Г. *Языковой вкус эпохи*, М.: 1994.
- Крысин Л.П.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язык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Языковые пробл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законы о языках*, М.: 1994.
- Крючкова Т.Б. "Типология языковых конфликтов," *Языковые пробл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законы о языках*, М.: 1994.
- Михальченко В., МакКоннелл Г.Д. *Письменные Языки Мира: Язы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нига 1, Москва: Академия, 2000.
- Михальченко В.Ю. "Законы о языках и языковые конфликты," <http://www.belti.msk.ru/unesco/d14.htm>, 2003.
- Мушаев В.Н., Есенова Т.С. Сусеева Д.А., Уланова А., "ЯЗЫКОВАЯ СИТУАЦИЯ И ВОПРОСЫ ВУЗОВ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http://www.belti.msk.ru/unesco/d15.htm>, 2003.
-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РСФСР (Данные всесоюзной переписи населения 1989 г.," М.: 1990.
- Нерознак В.П. *Современная этноязыковая ситуация в России*, М.: 1994.
- Нерознак В.П. *Язык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М.: Академия, 2002.
- "Основы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авовом статусе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Проект «Абориген», приложенные к газете «Федерация», 22 июня 1993.
- Подберезкина Л.З. "Современная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и языковая политика," *Русский язык в ег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и*, Тез. докл. М.: 1998.
- Подберезкина Л.З. "Языковая политика в урбонимии Красноярска: реальность и перспективы,"

*Вопросы языковой политики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СПб.: 1998.

*Проблемы возрождения калмыцкого языка*, Элиста: 1992.

Туманян Э.Г. "Законы о языках и возможность их реализации," *Язык в контекст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М.: 1994.

Туманян Э.Г. "Языковые законы 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 *Языковые пробл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законы о языках*, М.: 1994.

Шаббаев Ю.П. "Языковая ситуация и этноязычные проблемы в Коми-пермяцком автономном округе," *Языковые пробл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законы о языках*, М.: 1994.

## Резюме

## Языковая политика в Республике Дагестан

Сон Чжон Хван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изучению языковой политики Республики Дагестан. Статья 10 Конституции Республики Дагеста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чт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языками Республики Дагестан являются русский язык и языки народов Дагестана, и Республика Дагестан гарантирует всем народам сохранение родного языка,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его изуч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в Республике Дагестан, где не имеется титульного языка, созданы принципиаль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возрождения и развития языков народов, что обеспеч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вивать идентичность народов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в Республик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 конституции Республики Дагестан 28 языков народов в Республик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тату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языка,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лишь 11 из 28 языков, которые имеют письменность, признаются ка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 аварский язык, агулский язык, даргинский язык, кумыкский язык, лакский язык, лезгинский язык, ногайский язык, рутульский язык, табасаранский язык, татский язык, цахурский язык (кроме языков народов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еще в числ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языков входят русский, азербайджанский и чеченский языки).

Кроме того, в отличие от большинства республик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Дагестан пока ещё не принят закон "О языках народов в Республике Дагестан", а проект данного закона ещё находится в дискуссии.

В этой связи, в Республике Дагестан очень мало обучаются языкам народов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А в большинстве школ идёт учеба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частности в городах почти нет средних школ, где идёт учеба на языках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Это исходит из предпочтения коренными народам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ысокой дол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общении, длинной культурной традици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ысокой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живания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так же как в других республик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Дагестан языки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коро исчезнут без активных и конкретных усилий для их возрождения.